

제 1 장

2011마약류범죄백서

서론

PROSECUTION
SERVICE

제1절 마약류의 개요

1. 정의

-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 ③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음
-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 법률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전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등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2. 종류

가. 마약류의 일반적인 분류

-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작용을 양양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에서 신체적 의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가리킴
- 일반적으로 약리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로, 의존성 면에서 중독성 약물과 습관성 약물로, 생성원에 따라 천연마약과 합성·반합성 마약으로, 그리고 제조원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함

나. 마약류의 구체적인 분류

1) 마약

가) 개요

-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추출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표 1-1] 마약의 분류

분류	품명	지정성분 수	비고
천연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엽	3	
추출알카로이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34	일부 의료용 사용
합성마약	페치딘, 메사돈, 펜타닐	75	일부 의료용 사용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관련법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5

- 가.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쉰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 나. 아편 :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 코카 관목(관목) : 에리드록시톤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나) 종류

(1) 천연마약

(가) 양귀비

- 양귀비는 일명 '앵속' (opium poppy, 罌粟)이라 불리는 식물로서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식물은 *Papaver Somniferum* L. 종과 *Papaver Setigerum* D.C. 종임



[그림 1-1] 양귀비

- 기원전 5000년경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편에 관한 지식을 돌에 새겨서 전한 것이 아편에 관한 인류 최초의 기록이며, 그 뒤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4세기경 양귀비에서 추출한 액체를 질병 치료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고 함
- 온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양귀비속 1년생 식물(1~1.5m)로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연안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황금의 초승달지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접경지역) 및 황금의 삼각지대(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역)를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음
- 양귀비라는 명칭은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그 시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양귀비에 비길 정도로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국내에서의 양귀비는 대부분 농어촌, 산간지역에서 가정 상비약이나 동물 치료약으로 밀경작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음

(나) 아편(阿片)

- 아편(opium)은 설익은 양귀비의 열매에 상처를 내어 흘러내리는 우윳빛 추출액을 60℃ 이하의 온도에서 건조시킨 암갈색의 덩어리로 생아편이라고도 함



[그림 1-2] 아편

- 민간에서는 아편의 탁월한 진통효과 때문에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아편을 처음 한두번 흡입하였을 때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감을 경험하는 등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에는 처음과 같은 약효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흡입을 하여야 되고 이는 결국 심각한 중독현상으로 이어짐
- 아편의 남용이 계속되면 남용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식욕과 성욕을 상실하고 메스꺼움, 구토, 변비, 홍조, 동공수축, 호흡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통상적으로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시간대임
- 이러한 폐단으로 영국과 아편전쟁(1840~1842)을 벌였던 중국(당시 淸國)은 1906년부터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를 전면 금지하였음



[그림 1-3]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는 모습

(다) 모르핀

- 모르핀(morphine)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반응을 거쳐 추출한 강력한 진통성을 지닌 알칼로이드(alkaloid)로서 1805년 독일 약사 Sertürner가 최초로 아편에서 분리하였으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Morpheus(꿈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모르핀이라고 명명함
- 아편으로부터 추출된 모르핀은 진통, 진정, 진해, 최면효과가 뛰어난 반면, 구토, 발한, 발열, 설사 등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사용 중단시 심한 금단증상을 일으킴
- 모르핀에 중독된 자들은 보통 하루에 3회 정도 이를 투약하는데, 1회 투약량은 10~20mg 정도로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에 120mg을 투약하기도 하며, 한번에 200mg이상을 투약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호흡장애를 일으켜 사망하게 됨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1-4] 모르핀

(라) 코데인

- 코데인(codeine)은 메틸 모르핀(Methyl Morphine)이라고도 불리는 알칼로이드(alkaloid)의 일종으로서 의학적으로 진통작용은 모르핀의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완화시키며 통증을 억제하는 진해 및 진정작용은 탁월하며, 비교적 신체적 의존성은 적은 편이나 남용할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함
- 코데인은 모르핀이나 헤로인의 중독증을 치료하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형상은 무취의 백색 결정이나 결정성 분말, 정제, 캡슐 또는 감기약과 같은 용액의 액상을 하고 있음
- 최근 코데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복방감초편¹⁾이 우리나라에서 살빼는 약으로 알려져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임

(마) 헤로인

- 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 즉 헤로인(heroin)은 양귀비의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 과정을 거친 후 모르핀 염기에 무수초산, 황성탄, 염산, 에테르 등을 화학 처리하여 만든 천연마약임
- 아세틸화합물인 헤로인은 냄새가 없고 백색, 연갈색, 암갈색의 분말형태로 나타나며 긴장, 분노, 공포를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임

1) 중국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감기약으로 모르핀(3mg/g)과 코데인(1.3mg/g)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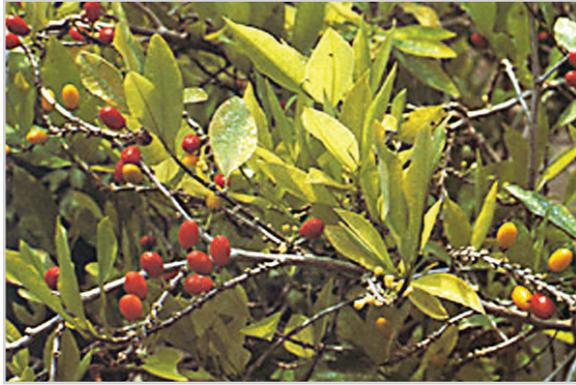
[그림 1-5] 헤로인

- 모르핀을 원료로 한 만큼 일반적인 약리작용은 모르핀과 유사하나, 그 중독성은 모르핀의 10 배에 달함
- 헤로인은 ‘용감한·강력한’의 의미의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된 말로서 1874년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1898년 독일 바이엘사가 진통제로 시판하였으나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미국은 1924년 헤로인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음

(바) 코카인

- 코카인(cocaine)은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지의 안데스산맥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로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쾌감을 일으키는 천연마약임
- 코카인을 씹으면 잎속의 알칼로이드가 사람의 점막에 흡수되어 지각신경 말단을 자극하는데, 고대 잉카제국에서 제사장들은 종교 의식 중 최면효과를 내기 위해, 서민들은 일상의 배고픔과 피로감을 잊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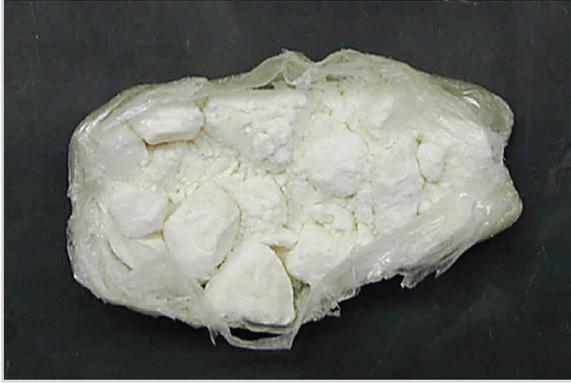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1-6] 코카나무와 열매

- 1532년경 스페인의 잉카제국 침공시 유럽에 전해진 코카잎은 1800년대 중반에 코카인 성분이 분리되었으며, 1873년에는 의료용 진통제로서 처음 사용되었음
- 남미일대에서 재배된 코카잎은 농부가 직접 잎사귀를 가공하여 코카페이스트(반죽)를 만들고 이를 정제하여 코카인을 제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글 내 밀제조시설로 운반되어 그곳에서 은밀히 코카인 추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엄밀한 규제 하에 코카인을 정식 생산하여 국소용 마취제로 사용하고 있음
- 남미의 일부지역 사람들은 직접 코카잎을 씹거나 코카페이스트를 흡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남용자들은 수정체 분말을 코로 들이마시거나 주사를 놓아 투약함
- 코카인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자극제(흥분제)로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다니는 느낌의 환각이 일어나고, 과다한 양을 흡입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며 열과 함께 경련이 일어나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함

제1절 마약류의 개요



[그림 1-7] 코카인



[그림 1-8] 크랙

- 한편 크랙(Crack)은 코카인과 탄산나트륨 등을 물에 희석하여 불로 가열한 다음 냉각시켜 추출하는 백색 결정체로서 코카인보다 몇 배나 약효가 강하고 중독성이 높으며, 유리관에 넣어 가열, 기포화시켜 흡입함

2011 마약류 범죄백서

(2) 합성마약

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효과를 가지면서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합성된 마약으로 모르핀과 같은 정도의 의존성과 부작용을 지니고 있고, 그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페치딘(pethidine)계, 메사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 5종으로 분류되며 그 중 페치딘계와 메사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음

(가) 페치딘계

- 페치딘(pethidine)은 모르핀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합성마약으로 1939년 독일 웨스트제약(Hoechst)의 O.Eisleb에 의해 최초로 합성되어 당시 'Dolantin' 이란 제품명으로 시판되었고, 'Demerol', 'Pethadel'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기도 하며 현재 알려진 종류로는 페치딘, 펜타닐, 디펜녹실레이트 등 약 23종이 있음
- 페치딘은 화학적으로는 모르핀과 다르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효과를 가져오는 점에 있어서 모르핀과 유사하고 진통효과 외에 진정효과도 있으며 투약시 3~6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진통제임

(나) 메사돈계

- 메사돈(methadone)은 2차대전 중 독일 웨스트제약(Hoechst)에 의해 모르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합성마약으로 현재 메사돈, 아세틸메사돌, 디피파논 등 약 22종이 알려져 있음
- 개발 당시 메사돈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작 2차대전 중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화학적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과 닮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면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약효가 모르핀보다 더 긴 24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전후 마약중독 치료제로도 사용되었음

제1절 마약류의 개요

-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당시 23개사의 제약회사들이 합성마약인 메사돈을 일반약품에 불법 혼합하여 해열진통제, 국소마취제, 비타민 영양제주사 등으로 속이고 팔다가 수만 명의 마약 중독자를 발생시킨 소위 ‘메사돈 파동’ 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그림 1-9] 메사돈

2011 마약류 범죄백서

2) 향정신성의약품

가) 개요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에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가리킴
-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약리작용에 따라 환각제 및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 억제제(진정제)로 나눌 수 있음

[표 1-2] 향정신성약품의 분류

분류	품명	지정성분 수	비고(의료용 사용여부)
가목(환각제)	LSD,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크라툼, JWH-018 및 그 유사체 (JWH-073, JWH-250 등), HU-210, CP-47497 등	36	불사용 심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나목(각성제)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케치논, MDMA, 케타민 등	41	제한적 사용 심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다목(진정제)	바르비탈, 치오펜탈, 리저직산 아마이드, 펜타조신 등	60	사용 그리 심하지 않은 의존성
라목(진정제)	디아제팜, 펜플루라민, 로라제팜, 마진돌, 날부핀, GHB, 텍스트로메토르판 등	68	사용 다목보다 심하지 않은 의존성

- 관련법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²⁾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종전 동법률 제2조 제4호, 2011. 11. 7. 전문 개정(2012. 6. 8.부터 시행 예정)으로 변경

2011 마약류 범죄백서

나) 종류

(1) 메스암페타민

-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흥분제(각성제)로서 속칭 ‘히로뽕’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암페타민류에는 메스암페타민을 비롯 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혼합물 등이 있는데 이들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강한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시킴
- 메스암페타민은 결정체·가루·액체 형태의 것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 ‘필로폰’, ‘백색의 유혹’, ‘백색가루’로도 불리며, 불법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또는 ‘총’으로 불리고 있음. 미국의 경우 결정체는 ‘Ice’, 가루·액체형태는 ‘speed’로 각 호칭되며, 일본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에서는 ‘샤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 호칭되고 있음



[그림 1-10] 메스암페타민

- 메스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치료제인 마황(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물질이며, 1893년 최초로 합성에 성공함



[그림 1-11] 마황

- 메스암페타민은 일본의 대일본제약회사가 ‘히로뽕’ (영문상품명 Philopon)이라는 상품명으로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주는 각성 약물로서 판매하였으며, 당시 상품명 ‘히로뽕’은 지금까지 메스암페타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한편 ‘Philopon’은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희랍어 ‘Philopon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함
- 단순 각성약물로 판매되던 ‘메스암페타민’이 전쟁 중에는 군수용품으로 대량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 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음

(2)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 MDMA는 1914년 독일 의약품회사에서 식욕감퇴제로 최초 개발된 이래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시중유통이 금지되었음에도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전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고 있음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1-12] MDMA

- MDMA의 별칭으로는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MDMA를 복용하면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관계로 기분이 좋아지는 약(feel good drug), 포옹마약(hug drug)으로도 지칭되고 있음
- 약리적 작용으로 복용 후 20~60분 정도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적인 흥분감을 경험하며, 약효는 3~4시간을 지속하고, 과다 복용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도 함

(3) LSD

-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1938년 스위스 화학자 Albert Hofmann에 의하여 최초로 합성된 무미, 무취, 무색의 환각제로 종이 또는 정제에 LSD용액을 흡착시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림 1-13] LSD 스티커



[그림 1-14] 정제형 LSD

(4) 날부핀(Nalbuphine)

- 날부핀은 응급환자용 강력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환각성으로 인해 한때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 약물로 남용되었고, 일명 ‘누바인’ 이라고도 불리고 있음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1-15] 날부핀

- 피하 주사시 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에 이르는 진통효과를 보이며 약효 지속시간은 3~6시간이며, 날부핀 3mg은 필로폰 6mg에 해당하는 강력한 환각효과가 있으며,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우울증, 두통, 환각공상 등 정신불안 증세와 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청색증, 언어장애, 빈뇨 등 부작용이 있음

(5)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덱스트로메토르판은 진해거담제로서 일명 '러미라' 라고 불리우고 있는 약물로 가격이 필로폰, 날부핀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일부 여성들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어 유흥업소 종사자, 가정주부 등이 남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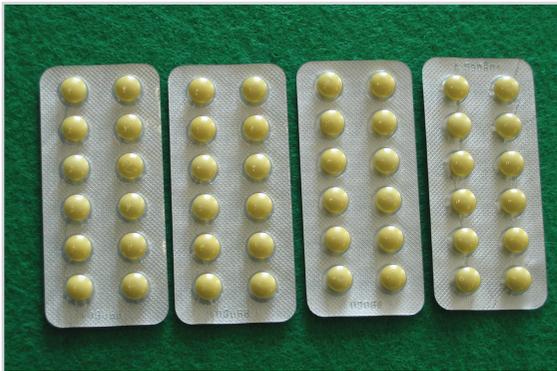


[그림1-16] 덱스트로메토르판

- 카리소프로돌은 근육이완제로서 일명 'S' 정 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약물로서 러미라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고 여성들에게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음

(6) 펜플루라민(Fenfluramine)

- 중국, 태국 등지에서 중국교포 보따리 장수, 관광객, 중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반입 되고 있는 약물로 중국산의 경우 '분불납명편·분미립편·섬수·상주청·철심감미교환·패씨감비환·건미소감비요환' 등의 제품명으로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통되고 있음



[그림 1-17] 펜플루라민

- 과다 복용시 심한 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 질환 등의 부작용이 있음

2011 마약류 범죄백서

다) 기타 신종 마약

(1)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s)

- 대마의 주성분인 THC와 구조가 유사하거나 또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물질(synthetic compound)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합성대마는 크게 JWH-018(JWH-122 등)과 HU-210, CP-47497 세 가지 종류로 신경계에서 작용하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물질임

[그림 1-18] JWH-018, HU-210, CP-47497³⁾

3) 2009. 7. 1자로 마약류로 지정됨

(가) JWH-018 등

- 일명 ‘스킹크’ 또는 ‘스파이스’ 등으로 불리며, 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마약으로 천연 마약류인 대마와 전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임
- 건조된 식물에 합성물질을 흡착시켜 ‘식물성 제품(Herbal Product)’ 형태로 판매되고, 이를 태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남용되는데 그 약리적 작용으로는 신경 전달을 저해하고 불안, 동요, 발작이나 경련을 나타내며, 그 정도는 THC보다 더 강해서 유사한 대마류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나타냄

(나) HU-210

- 1988년 스위스에서 히브루대학의 라펠 메코람 교수가 이끄는 연구단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합성 Cannabinoid
- 대마초의 천연 THC성분보다 100배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내고 지속기간이 더 길며, HU는 Hebrew University의 약칭임

(다) CP-47497

- 1980년 화이자제약에서 개발한 진통효과가 있는 Cannabinoid 수용성 활성체임

2011 마약류 범죄백서

(2) AM-2201

- 미국 Northeastern University, Center Drug Discovery의 교수인 Alexandros Makriyannis 에 의해 특허 등록된 합성 마약류로, 영문이니셜에 따라 AM으로 명명되었다고 함
- JWH-018 유사체(불소만 추가됨)로 일반적으로 JWH-122, JWH-250 등과 혼합된 제품유형이 'SPACE CADET FLIGHT RISK' 라는 품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됨



[그림1-19] AM-2201

- 합성 마약류를 건조된 식물의 잎에 흡착시킨 후, 비닐봉지에 1~10그램씩 소매로 포장, 판매되는데 그 환각효과는 JWH-018의 9배, 대마초 성분의 41배 수준이며, 불소 성분 함유로 불쾌한 냄새가 나므로 젖은 빵·말린 과일 등에 넣어 희석시켜 복용하거나 허브와 섞어 흡연함
-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2011. 2. 1. 개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류로 지정됨

(3) 4-메칠에스케치논(4-MEC)

- 메스케치논 유사체⁴⁾로 '4-MEC', '4-MEC crystal' 등의 품명으로 거래됨



[그림1-20] 4-MEC

- 효과는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에서는 2011. 2. 1. 마약류로 지정됨

4) 메스케치논

- 1928년에 처음 합성, 1930~40년대에 소련에서 항우울제로 사용되다가 1960년대부터 오락용 약물로 사용
- 효과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하고 종종 코카인과도 비교되며, 정신적 의존성이 상당히 강해 의학용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음
- 코로 흡입하거나 연기로 태우고 주사로도 가능

2011 마약류 범죄백서

(4) 크라툼(Kratom)

-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생하는 열대성 나무로, 말레이시아에서는 `Biak-Biak` 이라 부르며, 다 자라면 높이가 약 15미터에 이릅니다
-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수십 년 전부터 복용해 온 것으로, 원주민들이 힘든 일을 견뎌내기 위한 각성제로 주로 사용해 왔는데 그 잎을 씹거나, 차로 마시기도 하며 그 분말을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 2006. 12. 4. 마약류로 지정되었고, 그 폐해는 각성과 진정의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소량을 복용하면 정신이 또렷해지며, 힘이 솟고, 말이 많아지며, 사교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각성 효과를 나타내며, 한꺼번에 다량을 복용하면 진정과 도취, 최음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5) 케타민 등

- 정부 당국은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케타민 등 5종의 물질을 추가로 지정, 이에 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 2. 16.부터 시행
- 인체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인 ‘케타민’은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지만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및 금단증상이 있으며, 특히 동물용 의약품으로 유통될 때 유통질서가 문란해져서 그 남용가능성이 높음
- 유흥업소 및 클럽에서 ‘date rape drug’으로 불리며, 정맥이나 근육에 주사하거나 흡연 또는 흡입할 경우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듯한 강력한 환각효과가 나타나고, 남용방식에 따라 1~6시간 정도 환각효과가 지속되며, 맥박 및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동반



[그림1-21] 케타민

- 이외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아민엠티’, ‘살비아 디비노람’, ‘살비노린A’ 및 불면증치료제인 ‘쿠아제팜’ 도 그 남용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음

2011 마약류 범죄백서

(6) bk-MDEA

- MDEA⁵⁾ 유사체로 AM-694 등 변형체로 유통됨



[그림1-22] bk-MDEA

- 마약류로 지정된 bk-MDBD와 체내에서 거의 동일한 대사과정을 거치며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환각효과를 일으킴

5) 환각 및 각성효과를 가지고 있는 페네틸라민과 암페타민계열의 디자이너 약물임

※ 디자이너 약물이란 불법 약물의 화학구조를 다소 변형시켜 제조한 합성 도취마약의 총칭으로 흔히 암페타민을 기초로 조제되는데 그 효과가 장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손상을 주며 사용자의 성격을 변화시킴

(7) 야바(YABA)

- 세계적 마약밀매조직인 '쿤사'가 개발한 것으로 태국에서는 '말처럼 힘이 솟고 발기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Horse Medicine'으로 통용됨
- 필로폰(25%)에 카페인(70%), 기타 성분(코데인 등 5%)을 혼합한 것으로 기존 필로폰과는 달리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띠고 있는 데다 정제나 캡슐형태여서 의약품으로 위장하기도 쉬움
- 복용 후 수분 내에 효과가 나타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높은 혈압이 30시간까지 지속되어 신경조직이 파괴되고 탈수증세도 나타나며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며 도취감, 흥분감, 공격성, 우울증 등을 보이고 수일간 계속 다량을 복용하면 정신착란,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등 환각효과 및 중독성이 강함



[그림1-23] 야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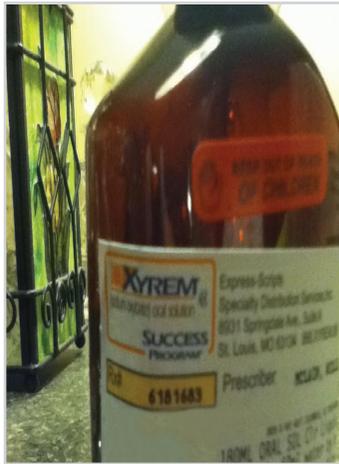
(8) 리저직산 아마이드(Lysergic acid amide)

- 나팔꽃의 일종인 'Hawaiian baby woodrose'의 종자에 함유된 성분으로, LSD와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킴
- 우리나라에서는 2000. 7. 1. 마약류로 지정되었고, 2011년 인천에서 처음 적발됨

2011 마약류 범죄백서

(9) GHB(Gamma Hydroxy Butyrate)

-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각성제·근육강화제로서, 뷰티산계 유기화학물질로 미국 FDA가 공식적으로 부작용을 인정하고 시판을 금지하기 전에는 건강식품 취급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으로 성범죄용으로도 악용되어 ‘date rape drug’로 불리기도 함
- 백색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로서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 타서 마시게 되면 10~15분 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 3~4시간 지속되고, 남용하면 혼수상태나 발작이 발생하며 24시간 이내에 인체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추적이 불가능함
- 우리나라에서는 2001. 12. 1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으로 지정됨



[그림1-24] GHB

(10) 프로포폴(Propofol)

- 영국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사에서 처음 개발하여 1977년 임상시험을 거친 후 발매되었고, 국내에는 1992년부터 사용·허가됨
-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술시 전신마취의 유도(induction), 유지(maintenance)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을 위해 쓰이고,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에도 사용됨
- 프로포폴은 신경전달물질에 관련하여 작용하는 GABAA 수용체에 영향을 주어 중추신경을 빠르게 억제함으로써 통증을 없애며, 부작용은 무호흡과 혈압저하 현상을 비롯하여 두통·어지러움·경련·구토·홍분·착란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불면증, 피로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 국내에서는 유흥주점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마약대용품으로 오남용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2011. 2. 1.자로 마약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로 지정



[그림1-25] 프로포폴

2011 마약류 범죄백서

3) 대마

가) 개요

- 대마는 칸나비스속 일년생 식물로서 중국, 인도, 북부아프리카,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세기 전부터 섬유 및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어 왔으나 의학용으로 사용한 기록은 없음



[그림 1-26] 대마

-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대마는 삼(hemp)이라고도 하며 재배역사가 오래된 식물임.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되어 왔음
- 대마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이 그 원산지라고 하며 본래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오래 전부터 도취를 초래하는 물질로 남용되어 왔음
- 대마의 약효에 대하여는 B.C. 2737년 중국의 신농(神農)황제시대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류머티즘, 각기병, 변비 등의 치료와 섬유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도취감을 얻기 위한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되었음
- 흡연용으로 대마초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일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이후부터임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⁶⁾

4.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나) 종류

(1) 대마초(大麻草)

-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그 학명이 Cannabis Sativa Linne이며 북남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리화나(Marijuana)라고 불리고 있음
- 그 중 암나무의 경우에는 씨앗 생성시기에 비교적 풍부하게 생성되는 THC(tetrahydrocannabinol)라는 물질 때문에 도취, 환각상태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
- 재배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것을 간자(ganja), 야생삼에서 얻은 것을 마리화나(marijuana) 또는 브항(bhang)이라고 함. 한편 마리화나라는 이름은 포르투갈어의 Mariguango(취하게 만드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함



[그림 1-27] 대마초와 흡입기구

6) 종전 동법률 제2조 제5호, 2011. 11. 7. 전문 개정(2012. 6. 8.부터 시행 예정)으로 변경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약리작용으로는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됨. 적은 양을 복용하였을 때에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꾸는 듯한 느낌, 공복감 등을 느끼며 사고의 형성 및 표현의 예민한 변화와 함께 시각, 후각, 촉각, 미각 등도 오묘하게 변화하는 반면, 많은 양을 남용할 때에는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집중력의 상실, 자아상실, 환각, 환청 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제3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함
- 대마의 남용이 위험한 것은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대마보다 약효가 강력한 다른 마약류로 사용을 전이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음

(2) 해쉬쉬(Hashish)

-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시키고 압착시켜 여러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이 해쉬쉬(hashish)인데, 갈색, 연갈색, 암갈색, 흑색 등의 덩어리이며 약 10%의 THC를 함유하고 있어서 대마초보다 8배 내지 10배 가량 작용이 강함
- 대마수지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능력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정신분열증과 같은 중독성 정신병을 초래하기도 함
- 보통 1kg의 해쉬쉬를 제조하기 위해 약 30kg의 대마초 처리를 요함



[그림 1-28] 해쉬쉬

제1절 마약류의 개요

- 해쉬쉬 오일(Hashish Oil)은 대마로 증류공정 등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고도로 농축되어 추출되기 때문에 THC 함량이 약 20%에 이르는 물질임



[그림 1-29] 해쉬쉬 오일

3. 마약류별 특성

분류	종류	약리작용 (흥분/억제)	의약품도	사용방법	부작용	작용시간	
마약	천연 마약	아편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3~6
		모르핀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헤로인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코카인	흥분	국소마취	주사 코흡입	흥분, 정신혼동, 사망	2	
	합성 마약	메사돈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아편과 동일	12~24
염산페치딘	억제	진정·진통	주사	"	3~6		
향정 신성 의 약품	메스암 페타민	흥분	식욕억제	경구 주사 코흡입	환시, 환청, 피해망상, 사망	12~34	
	바르비탈류	억제	진정·수면	경구 주사	취한행동, 뇌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1~6	
	벤조디아제핀류	억제	신경안정	경구 주사	"	4~8	
	LSD	환각	없음	경구 주사	환각, 환청, 환시	8~12	
	날부핀	억제	진정·진통	주사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3~6	
	덱스트로 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	억제	진해거담	경구	취한행동, 환각, 환청	5~6	
	펜플루라민	억제	식욕억제	경구	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	6~8	
	케타민	억제	동물마취	경구 주사 흡연	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1~6	
대마	대마	환각	없음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 환각	2~4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 동향

1. 국제 불법마약의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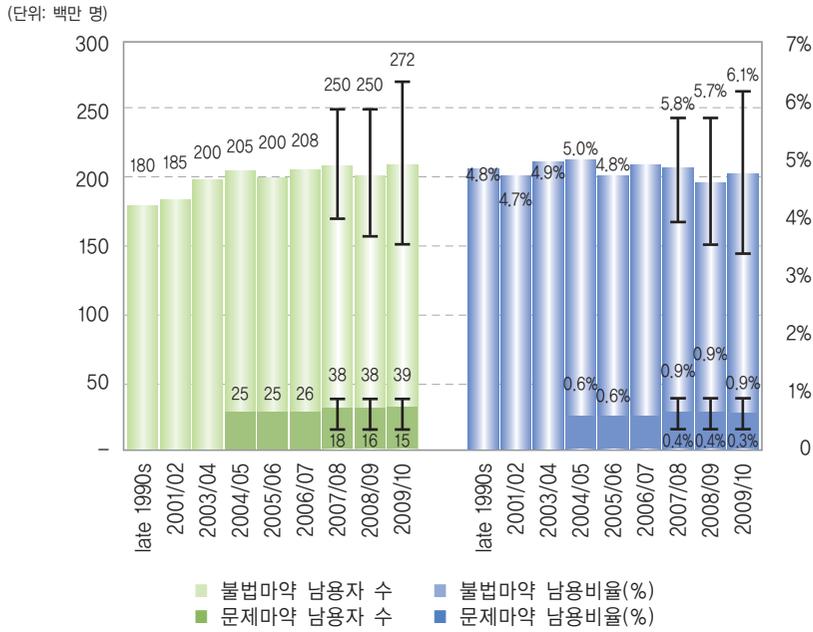
가. 소비(남용)(Consumption)

- 2009년 세계 불법마약 남용 인구⁷⁾는 15세~64세 세계 인구의 3.3~6.1%에 상당하는 1억4천 9백만~2억7천2백만 명 가량으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추산하고, 그 중 절반이 현(現) 남용자(Current drug users)임
- 1990년대 이후 전체 마약남용자는 증가추세인 반면, 불법마약 남용률(Prevalence Rate)은 1,500만~3,900만 명 가량의 ‘문제마약 남용자(Problem drug users)’⁸⁾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안정적임
- 종전 주요 불법마약의 남용률이 높은 중국, 인도와는 별도로 최근 아프리카지역에서 남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7) 1회 이상의 불법마약 남용 인구를 가리킴

8) 이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관련 국가별로 대체로 의존성이 있거나 주사기를 통한 투약을 하는 마약남용자를 가리킴. 또한, 유럽마약중독모니터센터(EMCDDA)는 “주사를 통한 마약남용, 장기간 또는 정기적 아편류, 코카인, 암페타민류 남용자”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함(Guidelines for Estimating the Incidence of Problem Drug Us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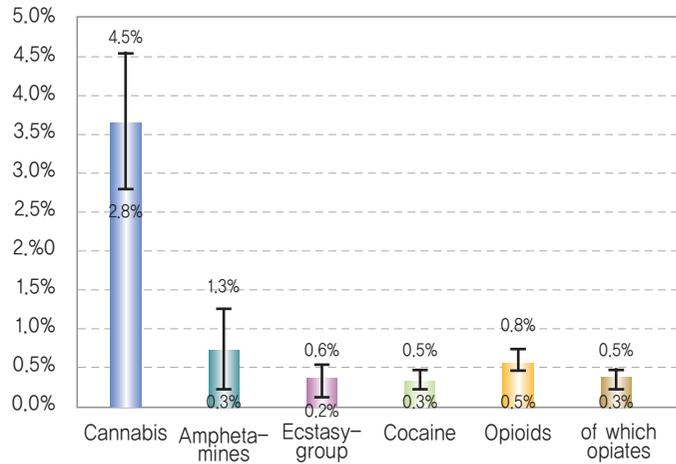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1-30] 세계 불법마약 남용자 수와 남용비율

- 대마류(Cannabis) 남용인구는 2009년 현재 1,250만~2,300만 명으로 가장 남용률이 높은 마약이고 다음으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를 포함하는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아편, 헤로인, 처방(prescription) 아편류를 포함하는 아편류임
- 헤로인 및 코카인은 주요 소비국에서 안정 또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합성 또는 처방마약의 남용증가로 상쇄되고, 처방마약의 남용문제는 일부 개도국 및 선진국에서 증가하여 국민보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양상임
- 최근 기존 불법마약시장에 국제적으로 규제가 미치지 않는 신종 합성물질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코카인 및 엑스터시를 대체하면서 판매되는 일명 ‘합법 흥분제(legal highs)’ 인 piperazines 및 mephedrone이며 또 다른 것은 ‘스파이스’ 로 대마류를 대체하면서 일명 ‘합법 대체약물(legal alternatives)’ 이라 불리고 있음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 동향



[그림 1-31] 15~64세 세계 인구대비 남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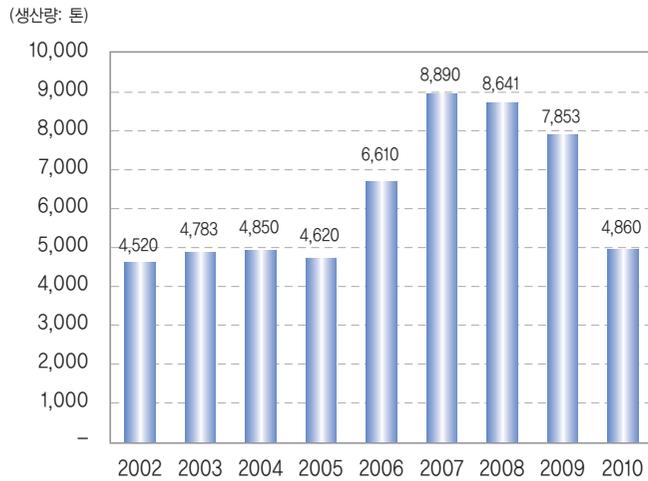
- 대마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치료수요(treatment demand)가 있긴 하지만, 특히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에서 그 수요가 높으며, 아편류는 유럽에서, 코카인은 남미지역에서 그 치료수요가 높고, 북미지역에서는 대마류, 아편류, 코카인의 비율이 거의 반반수준이며, ATS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지역에서 높은 편임
- 마약남용관련 보건적 측면에서는 주사기 이용 불법마약 남용자(IDU, Injecting drug users)의 HIV⁹⁾ 감염률은 17.9% 또는 280만 명으로 추산(2010년)되고, 주사기 남용자의 C형 간염(HCV) 감염률은 50%로 약 800만 명으로 추산(2010년)되고 있기도 함
- 또한, 불법마약 남용으로 인한 세계 사망인구는 매년 104,000~263,000명으로 15~64세 세계 인구 100만 명당 약 23~58명 수준이며 그 중 절반가량은 과다남용으로 알려짐

9)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후천성 면역결핍증(일명, AIDS)

2011 마약류 범죄백서

나. 생산(Production)

- 2010년 세계 양귀비(opium poppy) 경작면적은 195,700 ha이며, 그 중 123,000 ha는 아프카니스탄이 차지하고 있음
- 2009년 대비 양귀비 경작면적이 20% 증가한 미얀마가 세계 양귀비 생산량의 증가 요인이지만 전체적으로 세계 양귀비 생산량 감소(7,853톤→4,860톤)의 주요 요인은 아프카니스탄의 양귀비 전염병(disease in opium poppy plants)으로 인해 아프카니스탄의 양귀비 생산량 감소로 분석됨



[그림 1-32] 연도별 세계 양귀비 생산량

- 2010년 코카인 생산량은 2007년 대비 18% 감소한 149,100 ha이고, 페루 및 볼리비아에서는 증가한 반면, 콜롬비아 생산량(production) 감소가 반영되어 코카인 밀조량(manufacture)은 상당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대마초(Cannabis herb) 생산량은 자료부족으로 정확한 산출이 곤란하지만 안정적인 압수량으로 추정하건데 생산량도 안정적이라는 분석임

- 대마의 실내경작(Indoor Cultivation)은 북미, 유럽, 대양주 지역의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대마수지(cannabis resin) 생산량은 추정이 곤란하지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연례보고서(ARQ)에 의하면 아프카니스탄 및 모로코가 주요 생산국임

다. 밀매(Trafficking)

- 대마생산은 대부분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지역 간(Inter-regional) 밀매는 빈번하지 않고, 코카인 및 헤로인은 지역 내(intra-regional) 또는 지역 간 밀매가 이루어지며 상당량이 생산(경작)지역과 무관한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ATS의 경우는 그 원료물질은 지역 간에 밀매되지만 밀제조는 주로 소비지역에서 발생함
- 1998~2009년 압수량은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대마는 2배 이상 증가, ATS는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인 대마류는 그 압수량이 최근 들어 감소한 반면, ATS 등은 증가추세임
- 특히, ATS는 2009년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의 증가에 따라 사상 최대 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ATS의 종류는 지역별로 다양하지만 대양주, 아프리카, 북미,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아편 압수량은 2009년에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추세였으나 이란 및 터키의 국내 압수량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코카인도 전반적으로 안정추세로 대마수지의 압수량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종전의 주요 소비지역에서 생산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 북미, 중유럽, 서유럽지역에서의 2009년 코카인 압수량은 감소추세이고 남미지역에서는 증가추세이며, 대마수지는 2008~2009년 사이 유럽지역에서의 압수량이 상당량 감소하였지만 북아프리카지역에서는 증가하였음

2. 최근 특이경향

가. 신종 마약(Emerging new drugs)

- 기존의 대마, 코카인, 아편류의 마약뿐 아니라 합성마약(Synthetic drugs)도 급속도로 진화하는 바, 이는 1) 기존의 단속방법을 피하는 신종 원료물질 등장 2) 국제적, 국가별로 규제 되지 않는 물질의 사용 3) 감소추세의 불법 마약을 대체하는 물질 등장 4) 남용자들의 기호 충족과 연관되어 있음
- 유럽은 이미 1997년~2009년 동안 110종의 신종물질이 보고(EMCDDA 및 Europol)된 바 있고 2010년에만 Piperazines, cathinones, synthetic cannabinoids, tryptamines, phenethylamines 등 40종 이상이 파악됨
- 특히, piperazines은 애초에는 회충제로 개발 되었으나 BZP(benzylpiperazine)의 파생체로 널리 알려져 향우울제로 재개발되었다가 현재는 엑스터시(MDMA) 대체 마약으로 TFMPP와 함께 남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주로 유럽, 북미, 호주 등지에서 암페타민류 및 코카인 대체약물로 남용되는 Mephedrone의 경우는 그 유사체의 일종인 naphyrone과 함께 법률적 규제 미흡으로 인해 남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이후 흡연혼합물(herbal smoking blends)로 적발되고 있는 합성대마(일명, spice)의 경우, 한 종(種)이상의 합성대마성분이 첨가된 식물체성분(plant material) 3그램 가량을 통상 함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규제물질로 분류하고 있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탓에 대마류 불법 마약의 대체약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그 성분에 대한 약리학적 및 독성학적 연구는 없지만, 대마류 마약보다 훨씬 강한 중독성이 있다고 추정됨

나. 주사기 사용 마약남용자의 2차 감염

- 2008년 11월 현재, 전 세계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자는 중국, 미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약 1억 5천9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문제마약 남용자의 약 60% 이상이 주사기를 통해 마약을 투약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마약남용 인구의 약 7.5% 수준임
- 주사기를 사용한 마약남용은 심각한 보건문제는 물론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남용자간 주사기사용 및 성행위는 HIV, C형 및 B형 간염 등 이른바 수혈성 전염병(blood-born infections)의 전파로 인해 공중보건에 심대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다. 마약남용 관련 사망률

- UNODC는 전 세계 마약남용 관련 사망인구¹⁰⁾는 연간 104,000~263,000명으로 추정하고 이중 절반이상은 마약 과다남용이라고 보고하고 있음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4대 원인요소인 AIDS, 아편 과다남용, 자살 및 정신적 외상 관련 사망자수를 194,000명(2000년), 헤로인 및 코카인 남용, 감염 관련 사망자수를 245,000명(2004년)으로 추산하기도 하는데 유럽마약중독모니터센터(EMCDDA) 보고서¹¹⁾는 이러한 마약남용 관련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30대라고 밝히고 있음

10) 과다 투약, 자살, 사고사(교통사고 포함), 감염사(HIV/AIDS, C형 및 B형 간염), 장기손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

11) EMCDDA, Annual report: the state of the drugs problem in Europe-2010(2010.11.)

2011 마약류 범죄백서

라. 서아프리카 마약조직의 확산

1) 유래

- 1950년대 : 레바논의 헤로인 밀매조직이 서아프리카지역을 경유지로 이용하기 시작함
- 1960년대 : 나이지리아 및 가나 마약조직이 대마초를 유럽지역으로 대량 밀매함
- 1970~1980년대 : 나이지리아 및 가나 마약조직이 헤로인, 코카인시장으로까지 진출하면서 이른바 ‘서아프리카 마약조직’ 이 등장함
- 1990년대 이후 : 나이지리아 및 가나 마약조직이 세계적 유통망을 구축하고, 베닌, 카메룬, 코테드부아르, 기니아, 세네갈 마약조직과도 연대하고 있음

2) 특이점

- 다른 국제마약조직과는 달리 이른바 ‘피라미드식’ 조직체계가 아니고 주로 가족, 부족중심의 소수 핵심인원만으로 운영함
- 핵심인원은 주로 필명, 가명을 사용하고, 조직원들은 비밀서약을 강요받고 위반시 조직의 공갈협박에 시달리기도 함
- 나이지리아에만 250가지 이상의 부족어가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 마약 이외에도 자금세탁, 공문서 위변조, 인신매매, 총기 및 다이아몬드 밀매, 총기강도, 인터넷 사기, 매춘 등 다양한 국제범죄에 개입하고 있는 실정임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 동향

3)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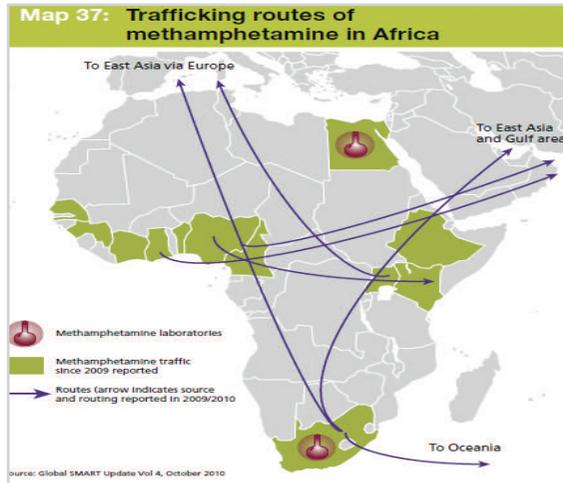
- 연간 약 123톤의 코카인이 소비되는 유럽시장(330억 미불 규모)에서 공급량의 25%(약 82억 미불)를 서아프리카 마약조직이 차지하고 있음
- 최근에는 멕시코 마약조직이 서아프리카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유럽의 코카인 시장, 원료물질 밀매, 아시아 마약시장 등에 진출하려는 징후가 있음



[그림 1-33] 나이지리아조직 밀집지역 및 코카인 은닉모습

- 동(남)아시아의 주요 최종목적지는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네시아이고, 최근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 서아프리카 마약조직과 관련된 메스암페타민 밀수사건이 급증하는 추세임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1-34] 아프리카지역 메스암페타민 밀매경로

출처 : UNODC발간 WORLD DRUG REPORT 2011

- 국내에서는 2002년 일명 'OC Frank사건'¹²⁾ 이후, 서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인 연루 마약 사건이 2007년 1명, 2008년 5명, 2009년 7명, 2010년 5명, 2011년 12명으로 빈발하는 추세인 바, 상당수가 밀수, 밀매 등 공급사범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림 1-35] 나이지리아 국적의 마약밀수범 O.C. Frank

12) 2002년 나이지리아인 OC Frank의 지시로 고용된 한국인 11명이 일본,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브라질에서 마약밀수혐의로 검거되고, 주범인 Frank는 2008년 중국에서 국내로 범죄인인도 후 2009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등 선고

3. 지역별 현황

가. 북미지역

1) 생산

- 10~20년 전에 비해 마약시장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최대의 마약소비지인 북미 지역은 대마초, ATS 및 아편류가 주로 생산되고, 특히 대마초는 멕시코 및 캐나다에서 유입이 되며, 온실재배(Greenhouse cultivation)는 미국과 캐나다에 국한되어 있음
- 세계 메스암페타민 밀제조 시설(대부분 소규모) 단속의 99%는 북미, 특히 미국에서 발생하고 대부분의 ATS도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상황이며, 엑스터시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국가와 연계된 아시아 마약조직에 의해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밀제조되고 있고, 아편류는 세계 생산량의 5% 가량(2009년)을 차지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음

2) 밀매

- 대마초,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를 포함한 대부분 마약이 멕시코 및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실태를 보이고 지역 간(intra-regional) 밀매도 있으나, 코카인은 콜롬비아 등 안데스 지역에서 멕시코 등 중미지역을 통과해서 미국 및 캐나다로 유입되고 있는 추세임
- 2009년 압수량은 대마초,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순이고 대마초와 엑스터시의 경우 전 세계 압수량의 70% 이상이 북미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이어서 메스암페타민 44%, 코카인 18%, 헤로인 4%, 대마수지는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 코카인은 2005~2009년 거의 43% 이상 급감한 반면, 동 기간에 암페타민류(87%), 엑스터시(71%), 대마초(32%), 헤로인(19%) 등은 증가하였음

2011 마약류 범죄백서

3) 남용

- 2009년 세계 인구(15~64세) 대비 북미지역 인구비율이 7%인데 비해 대마초 남용률은 훨씬 높은 10.7%이고, 특히 12세 이상 대마초 남용률은 2007년 10.1%에서 2009년 11.3%로 증가
- 2009년 세계 코카인 남용자의 37% 이상이 북미지역이며, 코카인 남용률은 15~64세 세계 인구의 1.9%를 차지, 코카인 남용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임(세계 평균은 0.4%)
- 아편류의 경우는 세계 아편 남용자의 40% 이상이 북미지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2~2006년 기간 동안 증가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8년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2009년에는 증가추세인 '처방 아편류 마약의 남용(non-medical use of prescription opioids)' 이 주요 원 인임(세계 아편류 남용률은 0.4%임)
- 특히, 처방 마약의 남용문제는 북미지역이 심각하고, 미국의 경우 12세 이상 인구의 남용률이 6.4% 수준으로 대마초에 이어 2번째이며, 2009년 약 220만 명이 진통제 등의 남용인구로 밝혀짐

나. 중남미지역

1) 생산

- 불법마약생산, 특히 코카잎 생산은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3국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100%를 차지할 정도이나 2010년 생산량은 149,000ha로 2000년 221,300 ha에 비해 감소하였고, 2007~2010년 코카인 생산량은 상당량(1/6)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0년 콜롬비아의 생산량 감소가 주요 요인임
- 2009년에는 세계 대마초 압수량의 70% 이상이 중남미지역이었고, 그 중 3/4가 남미지역에서 차지하였음

2) 밀매

- 밀매 경로는 주로 안데스지역에서 시작하여 1) 멕시코나 미국으로 2) 중미지역을 경유하여 멕시코로 3) 카리브지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각 유입되고 있으며, 유럽으로의 경로도 마찬가지로 1) 안데스지역이나 주변 국가를 경유하여 2) 카리브지역 또는 아프리카, 특히 서아프리카지역을 경유하여 각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음
- 코카잎 압수량은 2007~2009년 25% 이상 감소하였고, 세계 압수량의 74% 이상을 차지하는 중남미지역의 코카인 압수량은 콜롬비아 등 관련국의 단속강화 및 국제협력의 결과로 2007~2009년 27% 증가하였음

3) 남용

- 2009년 중남미지역의 세계인구 대비 대마 남용률은 다른 지역 평균치보다 낮은 5%이고, 15~64세 인구의 대마 남용률은 남미지역이 2.9~3.0%, 카리브지역이 1.6~7.6%, 중미지역이 2.2~2.5%임
- 2009년 세계 코카인 남용인구의 17%인 260만~300만 명 가량이 중남미지역이 차지하며, 지역인구의 0.9~1.0%가 코카인 남용인구로 추정됨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처방 아편류 남용은 코스타리카, 브라질, 칠레 등에서 심각하고, 주로 식욕부진, 주의력결핍 용 처방 ATS 남용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에서 높은 수준임¹³⁾

다. 유럽지역

1) 생산

- 유럽은 대마초, 암페타민, 엑스터시의 주요 생산지로, 마약류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대마초 : 주로 실내 밀경작이 대부분으로 전반적 증가세이며, 2008년 경우 지역 내 29개국에서 대마초 밀경작이 보고된 바 있음
 - 엑스터시 : 종전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 대부분이 밀제조 되었으나 2008~2009년 유럽지역에서의 적발 사례는 거의 사라짐
 - ATS : 암페타민류 마약의 주요 생산국은 네덜란드, 폴란드, 벨기에 등이며, 특히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밀제조 시설은 체코에 집중되어 있을 뿐임
- 유럽 대마압수의 49% 이상(2009년)은 모로코산(産) 대마수지이며 2005~2009년 대마초 압수량은 증가한 반면 대마수지는 감소하였음
- 코카인은 주로 해상이나 공항을 통해 밀매되고, 최근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한 밀매가 증가 추세로 1998~2006년에 코카인 압수량이 증가한 이후, 2006~2009년에는 그 압수량이 급감(-53%)하였는데, 이는 남미지역 단속기관과의 공조 및 정보공유를 통한 단속에 기인함
- 2009년도 코카인 압수량의 97% 이상은 서유럽 및 중부유럽에서 발생하였고, 서아프리카 경유 밀매는 2004~2007년에 증가한 이후, 2007~2009년에는 감소하였는데 주로 이베리아 반도¹⁴⁾, 네덜란드, 벨기에를 통해 유럽연합지역(EU)으로 유입되고 있음

13) INCB, Report for 2010 - Psychotropic Substances 참고

14) 유럽의 남서부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반도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 동향

- 헤로인은 2009년 세계 압수량의 38% 이상을 유럽지역이 차지하고 대부분 압수(전체 유럽 압수량의 63%)된 지역은 터키정부의 단속노력의 결과 남동유럽지역이며 다른 유럽지역에서의 헤로인 압수량은 안정적인데 비해 이 지역에서의 압수량은 3배 급증함
- 대부분의 마약이 유럽지역에서 소비되는데 반해, 엑스터시는 주로 유럽지역에서 생산되어 지역 밖으로 이동하고 최근에는 원료물질 부족 및 통제강화에 따라 세계 압수량 대비 유럽 엑스터시 압수량은 1996년 90%에서 2009년에는 18%로 급감함
- 세계 암페타민 압수량의 24%(2009년)를 유럽이 차지하고 2005~2009년 전반적인 압수량의 추세는 안정적이지만 유럽지역 암페타민 압수량의 80% 이상이 서유럽 및 중부유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일명 ‘액체 엑스터시’ 또는 ‘데이트 마약’으로 알려진 GHB는 2005~2009년 기간 동안 4배 급증하였고 세계 압수량의 80%를 차지함

2) 남용

- 2009년 유럽 제1마약은 대마초로 15~64세 인구 중 5.2~5.3%가 남용인구이고, 제2마약인 코카인 남용률은 0.8~0.9%로 남용인구수는 430만~475만 명(세계 코카인 남용인구의 30% 수준)이며, 엑스터시는 유럽의 15~64세 인구대비 0.7%인 370만~400만 명의 남용률을 차지(세계 엑스터시 남용인구의 1/6 수준임)하고 있음
- 2009년 유럽의 암페타민 남용인구는 250만~320만 명으로 15~64세 인구대비로는 0.5~0.6% 수준이고, 특히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대부분의 남용은 체코에 집중되어 있지만 주변의 슬로바키아, 독일, 오스트리아, 발칸 반도¹⁵⁾ 및 노르딕 국가¹⁶⁾ 등도 포함됨
-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¹⁷⁾에 따르면 처방마약 남용문제는 유럽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는 비교적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며 아편류 처방마약 남용은 북아일랜드가 가장 심각한 지역임

15) 유럽 남부, 지중해 동부에 돌출한 3각형의 반도로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에서 터키, 그리스를 포함

16)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를 포함하는 북유럽 5개국 지역

17) EMCDDA, The State of Drugs Problem in Europe, Annual Report 2010 참고

2011 마약류 범죄백서

라. 아프리카

1) 생산

- 아프리카산 불법마약의 대부분은 대마류로, 특히 대마수지는 모로코에서, 대마초는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각 생산되고 있으며, 아편은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지역에서 소량 재배되고, 최근 새롭게 문제시되는 ATS의 경우 메스암페타민 및 메스케치논(methcathinone)은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제조되어 지역에서 소비되는 추세이며, 이집트에서의 ATS 밀제조 시설 보고도 있음
-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지역의 경우 메스암페타민이 동(남)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전문적인 ATS 밀제조가 문제화되고 있으며 2010년 기니아(Guinea)에서 적발된 원료물질 및 제조 기구로 추정하건데 ATS 밀제조시설이 존재한다는 보고 있음

2) 밀매

- 아프리카지역의 대마 밀매는 대부분이 지역 내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가 유럽 등 지역 밖으로 밀매되고 북아프리카산 대마수지의 경우는 대부분이 유럽으로 밀매됨
- 아프리카-유럽 경로를 통한 코카인의 밀매량은 2008~2009년에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남미에서 아프리카로 밀매된 35톤의 코카인 중 21톤 가량이 유럽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소량은 서아프리카에 비축되었다가 유럽으로 유입되기도 함
- 아프카니스탄산(産) 헤로인은 주로 아프리카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밀매되고, 특히 동아프리카지역은 이러한 밀매의 중간 경유지(intermediate target)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부 및 북부 아프리카지역에서 헤로인 압수량이 높은 편인데 2009년 40~45톤의 아프카니스탄산(産) 헤로인이 아프리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 나이지리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부분의 메스암페타민이 압수된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프리카지역의 메스암페타민 추세를 특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부족함

3) 남용

- 아프리카지역의 치료 수요(treatment demand)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남용률은 대마초 64%, 아편류 19%, 코카인 5%, ATS 5%, 메타qual론(methaqualone) 4%, 카트(khat) 3% 등의 순이었음

마. 아시아

1) 생산

- 아시아 주요 생산 마약은 아편으로 2대 생산국은 아프카니스탄 및 미얀마이며, 전 세계 아편 생산량 대비 아시아 비중은 2007년 98%에서 2010년 8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아시아산(産) 아편이 세계 아편시장은 물론 헤로인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2007~2010년 아프카니스탄의 아편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미얀마는 증가함
- 대마생산은 아시아지역 전반에 걸쳐 있고, 대마수지의 경우 2010년 아프카니스탄 추정 생산량이 1,200~3,700톤으로 세계 최대 생산국인 모로코에 이어 2위 수준임
- 기존 주요 메스암페타민 제조국가로는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이고, 2009년에는 이란도 주요 제조국가로 등장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엑스터시 제조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2) 밀매

- 아편 및 헤로인은 통상 지역 내 밀매되지만 특히 아프카니스탄산(産)은 유럽지역으로, 미얀마산(産)은 중국으로 각 밀매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아시아산(産) 아편의 경우 모르핀과 마찬가지로 세계 밀매량의 99%를 차지(헤로인은 2009년 현재 56%)하고 아편 압수량 비교에 따르면 미얀마 주변(일명, 황금의 삼각지대)보다 이란 및 파키스탄 등 아프카니스탄 주변(일명, 황금의 초승달지대)의 압수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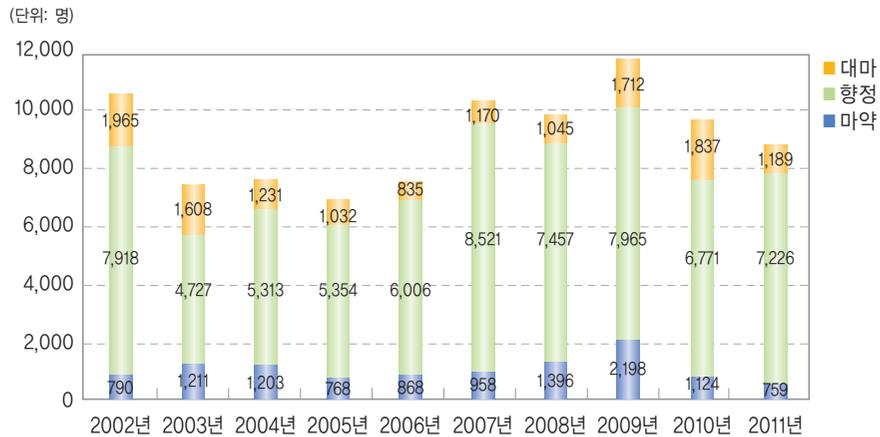
2011 마약류 범죄백서

4. 국내 개황

가. 일반동향

- 마약류 사범수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하였다가 2002년도에 실시된 마약류 사범 퇴치전략의 성공(10개과 224명 단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2009년에는 다시 10,000명 선으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다만 국내 마약생산 및 공급조직은 검찰이 주축이 되어 철저히 단속한 결과, 대부분의 마약류 밀조조직 및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1차 공급조직은 거의 궤멸된 상태로 보임
- 그러나 2006년도 1건 4명, 2007년도 1건 2명이 메스암페타민의 주원료인 에페드린이 포함된 감기약과 살 빼는 약에서 이를 추출,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10년도엔 벤질시아나이드를 이용한 신공법,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이용하여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한 2건 2명, 원료물질 소이움 하이드록사이드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제조한 1건 1명이 적발되었고, 2011년도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일명 '스파이스'를 제조한 주한 미군 2명(1건)이 적발됨에 따라 일반인 등 누구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됨
- 201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은 9,174명으로 전년도 대비 5.8% 감소하여 최근에 계속적으로 감소(2010년도 9,732명으로 전년도 대비 18.0% 감소) 추세인 반면 2011년도 밀수, 밀매 등 공급사범은 2,179명으로 전년도 대비 7.4%(2,028명) 증가하였음
- 국내 주종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외국산 밀반입량은 19,015g으로 전년도 대비 120% 증가하였고, 대마초 외국산 밀반입량도 618g으로 전년도 대비 124% 증가하였는데, 특히 필로폰의 밀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중국, 말리,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국제마약밀수조직 및 내국인에 의한 대량 밀수가 그 원인임
- 201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에 단속된 인원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소한 것에 기인하나 오히려 행정사범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음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 동향



[그림 1-36]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추이

나. 경유 목적 마약사범 증가 및 국제범죄조직 개입 마약류 밀수사건 증가

- 2011년도 필로폰 관련 사범은 전년 대비 감소 하였으나 여전히 필로폰은 한국의 주종 마약류이며, 국제 거래조직이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마약세탁을 위한 중간 경유지(transit point)로 이용하거나 한국인 및 미국인 등 다국적 마약운반책을 고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음
- 2008년도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나이지리아계 코카인 밀수조직이 일본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량의 코카인을 브라질을 거쳐 국내에 밀반입하고 일본으로 재수출하려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09년도에는 대만에 거점을 둔 국제범죄조직이 기존의 캄보디아 또는 태국에서 대만으로의 루트에서 캄보디아 또는 태국에서 한국을 경유, 대만으로의 루트를 변경하여 한국인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고용하여 헤로인 4.94kg을 5회에 걸쳐 밀거래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10년도에는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 거점을 둔 동남아시아 마약밀수 조직원들인 싱가포르인들이 필로폰 1kg을 대만으로부터 한국을 거쳐 말레이시아로 밀반입하려던 사건이 적발됨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011년도에는 나이지리아 국제마약밀수조직이 한국과 미국 여성을 운반책으로 고용하여 아프리카 말리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3국을 경유, 한국과 일본으로 필로폰 3.16kg과 2.60kg을 밀반입한 사건이 국내에서 적발되었는데, 이는 마약 청정국가로 분류된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면 최종 소비지인 국가에서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
- 그동안 세계 최대의 헤로인 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유엔과 세계 각국의 협조로 헤로인 원료 물질인 아편 재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아편을 커피 등으로 대체하는 대체작물 지원 정책이 대대적 성공을 거두게 됨에 따라 이 지역 국제 마약거래 조직은 2003년 이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편 재배를 통한 헤로인 생산 대신 작은 공간에서 화학적 공정을 거쳐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필로폰을 대체 마약물질로 생산하여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주종 마약류가 아편, 헤로인에서 필로폰으로 변화하고 있고, 필로폰 공급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로 경유목적 마약류 사범의 증가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2007년도에 일본 야쿠자 등이 개입하여 중국산 필로폰을 홍콩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후 가공 및 재포장 과정을 거쳐 이를 재차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가 검거된 사건, 2008년도에 일본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량의 필로폰을 말레이시아, 터키를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후 최종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던 사건, 2009년도에 대만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량의 중국산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던 사건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량의 필로폰을 싱가포르를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후 나이지리아인 및 일본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일본에 밀수출하려던 사건이 각 적발되었고,
-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나이지리아 국제 마약밀수 조직원들이 한국과 외국 여성 등을 운반책으로 고용하여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제3국을 경유, 한국 또는 일본으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하려다 국내에서 적발된 사건, 2011년도에 중국 마약조직원이 한국인 여행사 직원을 운반책으로 고용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2.2kg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건이 각 발생되었는데, 이는 일본 야쿠자조직과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마약조직 등 국제범죄조직이 개입하여 한국을 중간 경유하여 일본, 대만 등을 마약 최종 소비처로 한 국제마약밀매 범죄의 실례로 앞으로 국제범죄조직 형태의 마약류 대량 밀수 및 밀매 범죄는 빈발할 것으로 보임

다. 해외 마약류 제조·공급책에 의한 국제우편거래 증가

- 검찰 등 수사기관의 마약퇴치 노력의 결과 2003년 이래 국내 대규모 밀조·밀매 사범은 거의 사라졌으나, 외국 마약거래조직과 연계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운반 위험부담이 적어 국내 소비 목적 소규모 마약류 밀반입 증가로 이어짐
- 2011년도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밀수사례는 134건(2010년 151건, 2009년 100건, 2008년 115건, 2007년 135건, 2006년 109건, 2005년 67건, 2004년 30건)으로 그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 기인함

라.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세 완화

-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국내 경기상황에 따른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감에 비례하여 일정한 주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속인원은 2001년 70명, 2002년 88명, 2003년 86명, 2004년 203명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162명, 2006년 116명, 2007년 298명, 2008년 928명, 2009년 890명, 2010년 858명으로 최근 3년 동안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2011년도에 295명으로 현격히 감소(전년대비 65.6% 감소)하였음
- 1995년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998년도 IMF체제로 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일시 출국하자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1999년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136%나 증가하는 급증 추세를 보였고, 2005년도 전년대비 20.2% 감소한 162명, 2006년도 전년대비 28.4% 감소한 116명(총 19개국)인 반면, 2007년도 전년대비 157.8% 증가한 298명(총 28개국), 2008년도 전년대비 211.4% 증가한 928명(총 29개국), 2009년도 전년대비 4.1% 감소한 890명(총 28개국),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3.6% 감소한 858명(총 31개국), 2011년도에는 전년대비 65.6% 감소한 295명(총 27개국)을 적발하였는데, 이는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추세에 따른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고, 특히 경기 인천 등지 근로공단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주요 태국인 불법체류자) 등이 신종 마약인 '야버'와 필로폰 밀매, 투약 등으로 인해 한 동안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수사기관이 지속적인 외국인관련 범죄단속으로 2011년도에 마약사범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1999년 이전까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대부분 대마사범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향정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도~2010년도까지 향정사범은 주로 태국인과 중국인의 필로폰 등 밀수 및 사용사범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고, 대마사범의 경우도 태국인 및 스리랑카 공장 근로자들의 급증과 미국, 캐나다 등 원어민 외국어 강사와 러시아 선원 등 사용사범의 증가가 그 원인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향정사범과 대마사범 중 태국인 및 스리랑카인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는데, 그 원인은 수사기관 등에 의한 지속적인 단속 등인 것으로 분석됨
- 국적별로는 1997년도 이후 이란인과 필리핀인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도 이후 미국인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2년도에는 미국인이 1위(31.8%)를 차지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33.7%, 29.1%, 16.0%로 이란인이 1위를 차지하였고, 2006년에는 다시 미국인이 1위(39.7%), 2007년도에는 중국인이 1위(21.1%), 2008년도~2010년도까지 태국인이 각 76.6%(711명), 64.9%(578명), 48.8%(419명)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중국인 35.3%(104명), 미국인 27.5%(81명) 順이고, 이전까지 점유율이 높았던 태국인과 스리랑카인은 각 2.7%(8명), 0.3%(1명)에 불과함

마. 농어촌 양귀비·대마 경작 집중 단속

- 201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이 전년도 대비 5.8% 감소한 9,174명으로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인데, 그 원인은 매년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실시하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에 검찰·경찰 등 합동단속반의 지속적인 단속활동(2009년 2,116명, 2010년 713명, 2011년 734명) 및 양귀비·대마 재배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효과인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양귀비사범의 경우 2010년도와 2011년도에 50대 이상 연령층의 점유율이 91.3%, 82.9%, 농업 및 주부 비율이 59.1%, 66.7%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 및 벽지산간 등에 거주하는 노령층 주민들이 민간요법 등의 용도로 양귀비를 밀경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